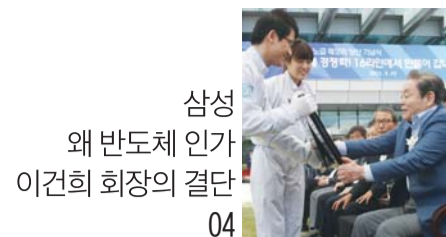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5778.01	↓ 코스닥	1076.00
	(-94.33)		(-13.85)
↑ 금리 (미국 3년)	3.338	↑ 환율 (원/달러)	1481.45
	(+0.023)		(+10.85)

metro® 경제



삼성
왜 반도체 인가
이건희 회장의 결단
04

숨통 트이나 했더니... 산업계는 '살얼음판'

2만원대 요금제로 5G 데이터 무제한

종전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불통 기업들, 공급노선 非중동 변경 국적선 26척 호르무즈에 발 묶여 美-이란 '10개 항 종전안' 입장차



8일(현지 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소방대원과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파트 잔해 속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이번 휴전의 대상이 아니라며 레바논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습을 벌였다. /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고사 직전이던 산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쟁의 핵심 변수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춘 기업들은 부품 등 공급 노선을 비중동항로로 일단 바꾸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의 통제 속에서 호르무즈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부 개방인 만큼 10일 개시하는 종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9일 업계에 따르면 휴전 선언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통항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적선 26척 중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전무하다. 길은 열렸지만 미국과 이란의 발표를 보면 후속처리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 개방을,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에 발표 이전과 바뀐 게 없는 상황이다"며 "선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동하기보다 안전이 확인된 후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이번 휴전으로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재안에는 휴전 이후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만큼 합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이란이 10일부터 파키스탄에

서 종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국의 견해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로 묘사하고, 이란이 미국이 이미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10개 항 종전안'에 대한 입장도 양측이 서로 배치된다.

이란은 종전안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계속 통제 ▲중동 지역 미군 철수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다. 특히 우라늄 농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전쟁 명분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며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내 산업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인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정재현, KT 박운영,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미래 네트워크 투자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통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자리는 특히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정부와 이통3사 수장이 처음으로 모인 공식 석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통신3사는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별도 요금 없이 기본 서비스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일정 속도(400kbps)를 보장하는 이 옵션은 기존에 월 5500원을 지불해야 했던 부가 서비스였다. 이를 기본화함으로써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이통3사, 통신정책 변화 예고 월 5500원 지불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서비스 전환... 717만명 혜택

기아, 5년간 49조 투입... 친환경차·로보틱스 강화

2026 CEO 인베스터 데이 전동화 등 미래사업에 21조 투입 글로벌 판매량 413만대 목표 상향



기아 송호성 사장이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에서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총 49조원을 투자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전략 강화에 나선다. 특히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413만대로 목표를 상향했다.

기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기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9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21조원을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기존 계획(2025~2029년) 대비 7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미래 사업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아는 완성차 판매와 관련해선 2026

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 115만대다. 내연기관은 올해 출시한 텔루라이드와 셀토스를 비롯해 핵심 차종을 지속 투입하고, 하이브리드는 텔루라이드 HEV, 셀토스 HEV를 시작으로 K4 HEV 등을 순차 출시해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픽업은 2025년 타스만 출시로 글로벌 신형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2030년 북미 핵심 시장 공략을 위한 바다 온 프레임 기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라인업도 추가한다.

전기차 라인업도 2026년 11개 모델에서 2030년에는 승용 2종, SUV 9종, PB V 3종 등 총 14개 모델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 100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PB V는 지난해 출시한 최초 모델인 PV5를 전 세계 시장에 본격 출시해 연간 5만 4000대를 판매한다. 이후 PV7과 PV9으로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40가지 이상의 바다 타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4

종에서 2030년 8종으로 확대하고 SUV 볼륨 모델 육성, 픽업 시장 진출을 통해 2030년 102만대, 시장점유율 6.2%를 목표로 잡았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럽에서는 2030년 74만 6000대, 시장점유율 4.8% 달성을 제시했다. 인도에서는 2030년 전기차 라인업을 10종으로 확대하고 41만대, 점유율 7.6%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기아는 미래 성장 동력인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에도 힘을 쏟는다. 기아는 2028년 아틀라스를 HMGMA에 본격 투입한 데 이어 2029년 하반기 기아 조지아 공장에 투입하고, 글로벌 공장으로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과 엔드투엔드(E2E) 기반의 자체 자율주행 모델을 통해 2027년 말 SDV를 개발하고 2029년 초 레벨 2++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고령층을 위한 통신 복지도 대폭 확대된다. 65세 이상 가입자 중 음성이나 문자 제공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제공량을 늘려주고, 향후 신설되는 모든 요금제에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59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복잡한 요금 체계를 슬림화하기 위해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3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5G 요금제 문턱을 낮춰 2만 원대 신규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지나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년 시행될 '디지털 포용법'에 발맞춰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윤경 "장애인 e스포츠 인재 육성·지원체계 마련"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국정 속도 2배 올리면 8년 2개월 남아...비상시기 틀 바꿔야"

▲수성구 재건축·재개발 힘 실은 김대현, 신속추진위 설치[6·3대구]
▲한미, 대규모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실시...전작권 전환 대비 韓 주도

▲김진균 "충북형 학교 시설 개방 거버넌스 구축"
▲정부, 드론 국가 대응체계 설계... "범정부 통합 구축"